

광주서 손 잡은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



통합민주당 광주시장 정기 대의원대회가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손학규·박상천 공동대표와 정대철, 정세균, 추미애 등 당 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 광주지역 국회의원, 박광태 광주시장, 대의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김동철 의원(광산구 갑)이 신임 시장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부 “아쿠아리움·콘도·마리나 확 줄여라”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비상’

축소팬 ‘국제 명소’ 사후 활용 어려워

정부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시설 가운데 아쿠아리움, 콘도미니엄, 마리나(요트 계류장)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박람회 성공 개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들 시설을 축소할 경우 박람회 개최에 활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개최 후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전남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기본계획 확정도 예정보다 5개월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여 후속 단위사업들 역시 연쇄 지연되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국토해양부

가 박람회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아쿠아리움(1천억원 규모), 콘도미니엄(924억원), 마리나(100억원) 등의 규모를 당초 기본계획안 보다 크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직위는 아쿠아리움을 당초 계획안대로 건립할 경우, 연간 150만명 이상이 관람해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2014년 방문객은 최대 50만명에 불과할 것이라며 300억원 규모로 줄이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위는 또 마리나 시설과 콘도도

수요가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시설을 절반 가량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정부가 ‘남해안 선벨트’ 개발의 일환으로 여수에 크루즈 전용부두 개설, KTX 운행 등을 추진하고 있고, 박람회 개최 이후 이 일대를 동남아 해안관광의 허브로 키워야 한다는 점을 들어 규모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향후 1인당 국민총생산이 3~4만달러 시대 도래하게 되면 남해안이 수도권에 대응할 국토의 중심 개발축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실제 현재 운영중인 서울 코엑스 아쿠아리움과 부산 아쿠아리움의 경

우 시설비가 각각 300억원 규모로 연간 50만명 관람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 전문가들은 “여수에는 돌고래 쇼장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갖춘 1천억원대 규모로 지어야 15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음은 물론 사후 활용에도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시 해양수산부 통합 등 정부 조직개편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지난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던 박람회 기본계획도 빨라야 연말까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민자사업 계획 등 다른 단위 사업도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교황식 → 입후보·정견 발표제

광주시의회 의장 선출방식 바꿨다

광주시의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의장과 부의장 선출 방식을 이른바 ‘교황식’에서 ‘입후보 및 정견 발표제’로 변경했다. <관련기사 5면>

광주시의회는 1일 제170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김성숙(민주·서구 3) 의원의 이의 신청과 유재신(민주·광산 2) 의원의 제안 설명에 이어 실시된

표결에서 1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1, 반대 3, 기권 2표로 최종 통과됐다.

이로써 오는 11일 치러질 하반기 의장단 선거부터는 후보 등록과 정견 발표를 통해 의장·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장도 ‘의장 선거에 준해 실시한다’는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후보 등록과 정견 발표를 통해 선출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되나

<고물가·저성장>

한은·통계청 등 발표 ... 각종 경제지표 악화

고유가 등 대내외 여건의 악영향으로 경제성장률 등 각종 지표들이 연일 추락을 거듭하며 한국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10·11면>

경제성장률은 3%대에 머물고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무역수지는 적자로 반전하고 있어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은 1일 발표한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전망(4.4%)보다 0.5%포인트 낮춘 3.9%로 하향 수정했다.

한은이 이날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은 고유가 등 대내·외의 물가상승 압력으로 채값경기가 크게 위축된 데다 내수시장마저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국내 예측기관별 연간 GDP증가율(하반기)	
한국은행	▶ 4.6%(3.9%)
삼성경제연구소	▶ 4.7%(3.8%)
LG경제연구원	▶ 4.6%(4.0%)
한국경제연구원	▶ 4.2%(3.3%)

한은은 또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2%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3.1%)에 비해 2.1%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향후 국내 경제가 ‘저성장·고물가’라는 안초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무역수지도 지난 6월 2억8천만달러의 적자를 내면서 한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고유가로 상반기 무역적자가 57억달러를 기록해 외환

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이후 11년 만(상반기 기준)에 처음으로 적자를 나타냈으며 연간 기준으로도 11년 만에 적자로 예측됐다.

한은은 또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당초 예상(연평균 30만명)보다 11만명이 줄어든 19만명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의 비탄막인 경상수지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5월 경상수지는 3억7천750만달러 적자로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6월에 비해 5.5% 급등했다. 이같은 상승폭은 지난 1998년 11월(6.8%) 이후 9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지난 3월 3.9%에서 4월 4.1%, 5월 4.9% 등에 이어 지난해에는 5%를 돌파할 만큼 상승폭이 날로 커지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재단 인재들이 떠난다

업무 많고 승진·보수 등 대우 낮아 전문가 등 공채 22명 중 16명 퇴사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이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로 키우기 위해 의욕적으로 뽑은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이유로 재단을 떠나고 있어 인력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 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팀장 4명, 일반직 11명 등 모두 15명이 공개시험을 통해 채용됐다. 채용 당시 이들은 국내 유명대학과 미국 명문대 출신으로 어학과 전문성이 뛰어나 재단을 이끌 인재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팀장 3명, 일반직원 7명 등 10명이 퇴사하고 현재 5명만이 재단에 근무하고 있

다. 또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치르기 위해 지난 2005년 공채한 디자인 전문가 7명 중 6명도 퇴사한 상태다.

이처럼 이직률이 높은 것은 격년제로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치러야 하는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승진 기회 등 대우가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재단 4~5급인 일반직(공무원 8~9급 상당)의 경우 재단 2급인 팀장(6급 상당), 재단 1급인 부장(5급 상당)으로의 승진이 현실적으로 차등이 있다. 상위 직급의 경우 대부분 외부 영입이기 때문이다.

재단은 7회 비엔날레(9월5~11월9일) 개막 60여일을 앞두고 업

무량이 폭주하자 광주시에 요청해 남구청 민원봉사실과 시청 환경녹지국 등의 부서에서 10명의 공무원을 긴급 수혈받아 이들 공채 직원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광주비엔날레재단(29명)과 비슷한 규모의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이직률이 10명 중 1명 꼴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들 역시 1년 단위 계약직이지만 3분의 2가 팀장급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다. 또 내년부터 해외 장기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정재현 사무처장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 계획에 따라 직원 처우를 개선하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62-222-8111

062)2530-9318